

전 남

# 전남 첫 다문화가정 '희망 오케스트라' 창단

### 순천시 초·중 20명 구성 "음악 통해 하나 될래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오케스트라 사업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시작됐다.

전남 문화예술재단 교육지원센터는 지난 7일 순천 연향동 순천빌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부모, 단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울림 희망오케스트라' 창단식을 가졌다.

단원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김성권 순천 빌라모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 맡았고, 바이올린은 김성권씨, 비올라는 남보라씨, 첼로는 이유정씨가 감사로 참여한다.

단원들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순천빌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모여 연습한다.

다울림 희망오케스트라 창단은 문



'엘 시스템아'(베네수엘라의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를 표방하는 다문화가정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순천에서 창단됐다.

화체육 관광부가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기 위해 공모한 '무지개다리사업'에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녹색의 땅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빛 하모니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무지개빛 하모니 사업은 다문화가정·다문화 청소년·이주노동자·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본 출신 학부모 아마시타 토요미씨는 "쌍둥이 자녀인 허영은·라현(여수 광기 초등학교 3년)이 평소 배에 우고 싶어 했던 비올라를 배우게 돼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한국생활을 하면서 언어 소통이 어려워 고생했는데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 문화적 차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차주경 전남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은 "다울림 희망 오케스트라의 모델은 '엘 시스템아'(베네수엘라의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라며 "음악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 밝고 바르게 자라 지역사회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의원 7명중 5명 3차례나 '무성의' 백지 투표 함평군의회 씩씩한 의장선거로 군민 '눈총'

지난 6일 치러진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의원들의 무성의한 투표 태도로 인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전체의원 7명이 참여한 의장선거에서 3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양규모 전반기 의장

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의원 7명중 5명이 3차례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는 백지 투표로 일관해 무효표를 만들었다. 양 의장은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하고, 3차 투표에서 다득표(2표)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당초 3~4명의 의원이 의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담합을 한 것처럼 3차례나 무효표를 만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 김모(함평읍)씨는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기본 자세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제는 후반기 원구성이 된 만큼 서로 화합으로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규모 의장은 당선소감으로 "의회가 생산적이고 역동적으로 함평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으니 서로 협력해 전반기보다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윤희기자 hwang@

## 부안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 본격 가동

###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부안군이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부안군은 "부안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생산부처 유통·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체계적인 통합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유통조직의 통합에 따라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에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산지유통 시스템 구축 등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산지유통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국비 54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총 136억원이 투입된다.

조합 공동사업 법인은 부안·부안중앙·계화·남부안·변산·하서농협 등 농업 6곳과 영농조합법인 부안유통이 각각 출자금 2억원씩 총 14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규모화·전문화·조직화 전략을 통해 양파·오디·감자·수박·배추·무·대파 등 7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군 정흥귀 농촌협력과장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매입, 유통활성화 및 일원화로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해상도시 건설 안된다" vs "친수공간 만들 것" 서천군-군산시 매립지 개발 갈등

서천군이 "금강하구를 황폐화하는 해상도시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천군은 지난 28일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용역 저지를 위한 행동을 나섰다. 국토부가 군산 해상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군산항 내항 준설도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용역'을 실시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천군은 "금강하구를 황폐화하는 해상도시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군산시는 준설도 투기장을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해상도시가 아닌 항만 친수시설로 개발할 것이라며 서천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군산시는 "유류 토지로 있는 군산시 해방동 1013번지 해상매립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2014년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양 지역주민이 휴

식하고 즐길 수 있는 '항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안시 동삼동 준설도 투기장이 해양 친수공원, 장원시 마산항 준설도 투기장이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내항 준설도 투기장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해상도시 건설과 그로 인해 수질문제가 야기될 것처럼 말하는 서천군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익기자 nogusu@

## 서부지방산림청 내달까지 지리산 둘레길 불법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리산 둘레길'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부산림청은 5개반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지리산 둘레길' 전 구간(274km)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서부산림청은 ▲산림에서 오물·쓰레기 버리는 행위 ▲허가·신고 없이 음식물 판매를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둘레길 안내표시판 훼손행위 등을 중점 단속·계도한다.

김성룡 서부산림청장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심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순창서 '도라지 사랑꽃축제' 14~15일 장안마을



'순창 도라지 사랑꽃축제'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순창군 팔덕면 장안마을에서 열린다.

팔덕면 장안, 백암, 장재, 이북, 덕진, 평지마을 등 강천산군립공원 인근 6개 마을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인 도라지를 이용해 5년째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도라지 사랑꽃 가족캠프, 미꾸라지 그랑프리, 누드 도라지만들기, 맨손 물고기잡기 등이 진행된다. 또 도라지 사랑꽃 사랑대회와 도라지페스티벌, 고무보트 타기, 새총 만들기, 물풍선 터뜨리기, 팔러 비즈공예, 도라지 트럭터 버스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볼거리가 마련된다.

축제를 앞두고 장안마을에 다목적 회관이 준공돼 향후지역 농촌관광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건강의 섬 완도' 상징 조형물



완도관문에 '건강의 섬 완도'를 알리는 상징물이 설치됐다.

완도의 푸른 하늘, 탁 트인 바다와 생동감 넘치는 바다의 물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건강의 섬 완도'

의 이미지를 경쾌한 브랜드 슬로건과 접목시켜 상징화했다.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LED 조명으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관문상징

물 설치로 완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뿐만아니라 군민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자랑스런 조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강진 청자공모전 대상에 정기봉씨 '청자상감동형병'



강진군이 '제 40회 강진 청자축제' 기획행사로 마련한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에서 '청자상감동형병(瓶)'(사진)을 출품한 정기봉(53·해남)씨가 종합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됐다.

전북부문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은 유재형(41·경기 이천)씨의 '청자상감보화당초문호'이,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은 박에서(22·충북 부여)씨의 '청자흑백음악도판'이 각각 차지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새 얼굴 "행정부와 소통하는 의회 만들겠다"

### 김성현 구례군의회 의장



"주민을 하늘로 섬기는 의회, 행정부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구례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성현(67) 의원은 "의회 가치와 존재이유를 부여해주는 군민들이 없다면 군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임기동안 의회주인 군민들의 아낌없는 찬찬으로 희망의 일을 피우고, 냉철한 비판을 성숙의 밑거름으로 삼아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

장, 구례'라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김 의장은 전주여고와 전주교육대를 졸업한 후 전남·북 지역에서 14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사)한국정치연맹 구례지회장을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단 신

### 군산시 24일부터 신규농업인 교육

군산시는 예비 농업인력 양성과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에서 2012년 신규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 1회씩 총 12회 실시되며,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내부 강사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농정책 정보 ▲귀농귀촌 정책 ▲영농정책 실천 계획서 작성 등 이론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18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3-454-5232) /전북취재본부=박승익기자 nogusu@

### 정읍 환경보호협 내장호 주변 정화활동

정읍시 환경보호협의회(회장 박경호) 회원들은 지난 7일 동학 100주년 기념탑과 조각공원, 수목원 등 내장호 주변에서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오물과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주변정리를 했다.

정읍시 환경보호협의회 회원들은 매년 오물투기 감시활동과 주변 쓰레기수거, 동물 먹이주기 등 환경보호는 물론 푸른 산·맑은 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 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고창 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6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명예학장 이강수 군수와 박대환 후반기 군의회 의장, 졸업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상인대학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기본과정, 심화과

정, 선진시장 견학 등 총 20회의 교육을 마치고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강수 명예학장은 "앞으로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해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

부안군은 지난 6일 부안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제4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제4기 대표협의체는 박명환 부군수와 이춘섭 전북 사회복지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과장, 부안군의회 의원,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복지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